

보도시점 2025. 5. 15.(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5. 14.(수)

청년의 목소리, 탄소중립의 미래를 밝히다

-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 마련 관련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 ‘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인 및 초중고 학생 등 17인의 미래세대 토론 참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김지윤(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최영빈(청년 기후 챔피언)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미래포럼」 미래세대 간담회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6649)



1. 추진 배경

-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4.8) 이후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31~’49) 및 입법 대안(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발족(‘24.12~)
-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장기 감축경로 수립 관련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청취하여 포럼 최종보고서에 반영

2. 간담회 개요

- (주최/주관) 환경부 기후미래포럼/한국환경연구원(KEI)
- (일시) ’25. 5. 16(금) 10:00 ~ 13:00 (총 180분)
- (장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
- (참석) 미래세대 패널, 기후미래포럼 미래사회분과 위원장(좌장) 및 위원,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 등
-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5)	10:00~10: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한국환경연구원
	10:03~10:05 (2)	축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발표 (5)	10:05~10:08 (3)	포럼 취지 및 경과	한국환경연구원
	10:08~10:10 (2)	간담회 진행 방향 안내	좌장
논의 (167)	10:10~12:57 (167)	미래세대 발언 및 패널 자유 토론 (오찬 병행)	미래세대 패널
폐회 (3)	12:57~13:00 (3)	종합정리 및 폐회	좌장